

함므라비 법전

윤이 나게 딱여진 黑閃緣岩의 기념 석주로서 기원전 1792년~1750년경 스사 근처에서 발굴 함므라비 법전이 새겨져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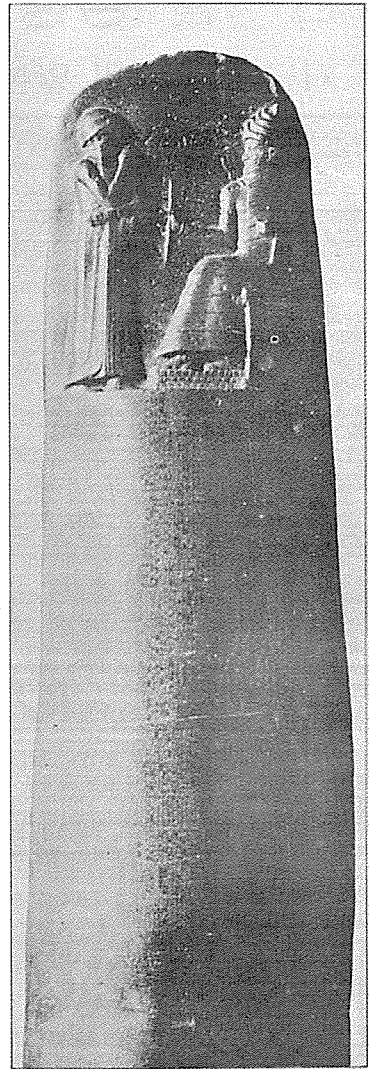
상부의 부조는 크이 태양신 샤마슈로부터 법전을 받아들이는 장면을 나타낸다.

이 법전중에는 “귀족의 눈을 실명시킨자는 자기 눈을 멀게 하는것으로 한다.

같은신분인 사람의 치아를 부러뜨린자는 자기 치아를 부러뜨리게 한다.

낮은 계급의 사람 치아를 부러뜨린자는 은 1/3미나를 지불한다” 라고 기록되어있다.

[루부르 미술관 소장(빠리)]



세창치과기공소

752-5970, 778-8687

서울용산구 도동 1가 19-18 (금정빌딩 302)

대표 권혁문